

2014 군정성과 및  
2015  
군정추진 계획

제  
**2**  
장



## 제1절 2014 군정성과

### 1. 총괄

민선 제6대 울주군의 새로운 출발을 계기로 인구 30만 미래 울주,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도약하고자 군정 비전을 '새로운 도약, 행복누리 울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해였다.

새로운 도약의 첫발걸음으로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인 문화·관광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최대 규모 해양스포츠 행사인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복합웰컴센터,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및 작천정 별빛야영장 운영을 통해 영남 알프스를 산악관광의 1번지로 만든다는 목표에 한 발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제활성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입주 및 주민 고용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산·학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다음 세대까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저소득 계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과 청소년,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의료 프로그램 운영, 각종 시설을 건립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한 복지서비스를 펼쳤다.

교육분야에서는 울산 최대 규모의 울주선바위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옹기종기도서관

관, 주민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38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책 읽는 도시 울주로 발돋움하는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국 단위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해서 ‘평생학습도시 울주’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울주 오피니언리더 사업, 울주아카데미도 큰 호응을 얻어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조사료 자급자족률을 100%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료 생산·이용을 촉진하고, 가축개량을 통한 고품질 한우불고기의 생산·유통을 지원하는 등 축산 사육 기반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 농·축산·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특산품을 선정하여 품목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해외시장 판로 개척, 명품 울주팍 전자상거래센터 본격 운영으로 농특산물의 마케팅과 판로 개척이라는 소귀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주환경조성 분야에서는 신청사건립, 남창천 정비, 공동주택지원사업, 청량 화장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수립, 공영주차장 추가조성 사업에 주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 2. 역점시책별 주요 성과

### 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조성

울주를 자연과 어우러진 산악문화·관광의 도시로 육성하고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문화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에 주력한 한해였다.

올해는 산악관광의 메카가 될 복합웰컴센터와 인공암벽장을 착공하였으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준비위원회도 구성하여 산악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밴프세계산악영화제 울주상영회를 개최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선보이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다. 또한 10월에 개장한 작천정 별빛야영장은 45면의 규모가 부족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어 확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산악관광 뿐만 아니라, 진해해수욕장 일원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개최한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는 26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제수상오토바이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해양레포츠 도시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다졌다. 또한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간절곶근린공원 기반조성, 진해 해양레포츠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체류형 해양관광 산업과 해양레포츠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가고 있다.

문화공연 분야에서도 주민의 문화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와 맞춤형 문화정책을 펼쳤다. 10만 명이 다녀간 울주 오디세이는 독창적인 문화공연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문화가 있는 어울마당, 울산 옹기축제는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일조하였다.

언양읍성과 창포당 복원사업, 석계서원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우리군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를 보존·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영수문학관 개관, 온산문화센터 개관, 댄스스포츠팀 창단, 울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문화공연,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가고 있다.

## 나.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경제 저성장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였다.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전략적인 마케팅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중소기업해외사절단 파견,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하여, 1억2천760만 불 상당의 수출 상담과 약 3천600만 불의 수출 계약을 달성하였다. 또한 기술닥터사업을 지원하여 53개 업체가 113,291백만 원의 수출증가 효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국제 기술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체질강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올 한해만 30여 개 기업을 유치하여 2016년까지 2,500억 원의 투자와 2,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3개의 마을기업과 17개의 사회

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6,440건의 구인·구직 상담과 알선을 통해 1,312명이 새로운 일터를 찾는 성과를 올렸다.

이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행사 개최, 전통시장 4개소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9월에는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여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 다. 사람중심의 따뜻한 체감복지 실현

사람중심의 따뜻한 체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후원연계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희망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11세대를 사례관리 발굴 대상으로 발굴하고 이 중 75세대에 233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8,085세대에게 가사지원과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주두레지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외에도 사랑의 집수리, 복지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도에 걸쳐 복지분야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핵심과제를 설정하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체감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또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및 아동, 다문화가정에게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계층의 통합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람중심의 복지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1,104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1만5천355명에게 기초연금 16,976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서부노인복지회관 증축,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은 물론, 특히 올해에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범 운영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에 2,418백만 원, 장애인연금에 1,220

백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에 6,600백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7,545백만 원의 생계·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다지기 위해 1,026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펼쳤다.

출산을 제고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쳤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이동장난감도서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으로 인구 30만 울주 건설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다.

## 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

울주를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인재 육성,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먼저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네스코와 공동주관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전국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울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가족소통프로젝트 울주 뮤지엄 가족캠프와 온가족 자연체험 울주한바퀴, 2030세대를 위한 울주아카데미, 3040 부모콘서트, 4050 세대를 대상으로 울주오피니언리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울주RCE 확산을 위해 재능나눔미 프로젝트와 학습동아리를 지원하였고, 아프리카희망 T셔츠 나눔캠페인을 실시하여 1만2천 여벌을 마다가스카르 섬으로 보내 나눔과 실천문화를 확산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명문고 육성을 위한 학습기반을 구축하고, 중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과학영재 멘토링, 초·중등생 3,308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각종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및 토요학교 운영,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운영비 2,72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7월에는 울주선바위도서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하여 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을 구축함으로써 울주군 전역에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울주선바위도서관

에서는 북스타트사업, 인문학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으며, 용기중기도서관에서는 책마중 서비스와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택배서비스 등 문화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35개소의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간의 상호대차가 가능토록 하는 책두레서비스도 제공하여 어디서든 손쉽게 책을 빌릴 수 있도록 하였다.

#### 마.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육성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우리군의 농특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에도 농산물이 생산, 유통, 판매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다.

봉계 황우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174개 농가가 우수한 친환경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봉계 황우쌀 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소비자가 지역쌀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쌀 외에 부추명품화 사업, 미나리즙 가공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특산물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더 나아가 블루베리, 참다래 등 4개의 친환경 신소득 과원을 조성하여 선진농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농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지역농협과 연계한 지역쌀 팔아주기, 지역배 사주기 행사를 개최하였고, 범서와 삼남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노력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명품 울주팍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여 국내외에 지역 농특산물의 광역판매망을 구축하였다.

축산 강국인 영연방 3개국과의 FTA 협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성을 갖춘 한우산업을 육성하고자 조사료 생산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2만9천여 두의 한우가 종축등록을 마침으로써 축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분야에서도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진하항과 평동항의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 바. 살기 좋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군청사 이전 업무는 물론 각종 재난재해 피해의 사전 예방,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거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에는 군청사 이전지의 개발해제구역 해제,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의 선정 등 군청사 이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이 외에도 두서면청사와 두서보건지소를 문화복지형 공공청사로 건립하였다. 또한 태화강생태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완공을 준비하고 있다.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해서 남창천을 재해에 강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여가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도로교통분에서도 삼남 작천정 일원 군도 12호선 확포장 공사 등 2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인도정비 공사를 비롯한 64건의 도로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다.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3개소를 준공하여 67면을 확보하고 불법주정차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도시안전 분야에서는 울주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및 비상벨 추가설치, 언양읍성 옛길안심마을 조성사업 지원, 청량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안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명품아파트 조성, 담장허물기를 진행하였고, 언양 중심시가지 거리조성, 온산읍 중심시가지 간판개선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또한 어린이공원 24개소를 정비하고 마을큰나무아래 쉼터 20개소를 설치하여 공원·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등산로 11.2km를 정비하여 주민 휴양공간을 확대해가고 있다.

## 제2절 2015 군정추진계획

### 1. 추진방향

민선 5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6대를 시작하면서 문화와 경제,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군민이 행복한 울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15년 비전을 '새로운 도약!! 행복누리 울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의 군정목표 아래 생동감 넘치는 매력도시, 쾌적한 친환경 성장도시, 즐겁고 희망찬 문화도시의 3대 군정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5년 비전 실현을 위한 6대 역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6대 역점시책

- 첫 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및 일자리 창출
- 둘 째, 다함께 잘사는 복지도시 실현
- 셋 째,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 넷 째,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도시 조성
-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농·어촌 소득향상
- 여섯째,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도시 조성

## 2. 역점시책별 추진계획

### 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및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닥터사업, 경영안정자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내 기업 역량과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제정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울산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여 지역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문화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나. 다함께 잘사는 복지도시 실현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적성에 맞는 진로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장의 복지 서비스 역할을 강화한 ‘복지이장 제도’를 시행하고, 민·관 협력 읍·면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식사와 우유배달 등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위급상황을 살피고, 노후를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으며,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지역주민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내·외국인 화합과 지역사회의 통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다.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군민의 오랜 염원인 신청사 건립은 2017년까지 반드시 완료해서 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일 것이며, 또한, 온양읍과 삼남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주민 편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언양읍성 안심마을 조성과 간판개선 정비사업, 남창역 주변마을 특화사업, 그리고, 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위험요소를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다중 이용 장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 계획이며, 각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도로를 건설하고, 공원 및 도시숲 등 주민 생활 쉼터를 더 늘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라.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도시 조성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부응하고 낭만지수와 문화지수가 높은 울주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울주만이 갖고 있는 천혜의 산악·해양관광 자원과 역사·문화 자산은 새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내는 우리 군의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복합웰컴센터와 인공암벽장 조성 등 전국 최고의 산악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기반 시설을 확실히 구축할 계획이며,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사전 홍보를 위해 2015년 ‘프레(PRE) 영화제’를 개최하고, 2016년부터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으로 진흥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양레포츠센터 건립과 각종 세계 대회 개최를 통해 진하·서생 일대를 전국 최고의 해양레포츠·관광 벨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간월사지와 언양읍성, 서생포왜

성, 창포당 복원 정비를 통해 우리 군만의 역사성도 잘 살려 나갈 계획이다.

옹기박물관과 울주민속박물관, 외고산 옹기마을과 연계되는 옹기마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연중 관광객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전통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며, 오영수문학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생활 속의 문화 어울림마당 개최 등 지역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와 함께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울주종합체육공원과 울주국민체육센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마. 선진국 수준의 농·어촌 소득향상

쌀시장 전면 개방과 FTA의 거센 파고도 거뜰히 이겨낼 수 있도록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고품질 공동 육묘장과 채종포 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쌀을 명품화해 나가고,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월등히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블루베리와 참다래, 무화과 등 친환경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시켜 나가고, 지역특화품목 11개를 명품 농산물로 육성하여 농산물 개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인 '명품울주배'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다각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양질의 조사료 재배 면적 확대와 우량 암소 혈통보전사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가축 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어선 안전장비 확충 등 안전한 조업 여건 마련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바.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도시 조성

인재가 제 능력을 발휘하고, 모두가 원하는 배움의 기회를 갖는 교육문화도시 울주를 만들기 위해 울주 e-평생학습센터 구축과 맞춤형 학습배달 서비스 제공, 재능 나누미단 구성과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청

소년 영어캠프는 물론, 초등학생 영어스피치 대회 개최와 과학영재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 육성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연 속에서 가족과 이웃이 소통하고 체험교육을 즐길 수 있는 울주 가족사랑 캠프와 온가족 울주한바퀴 등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며,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 체험학습, 204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울주아카데미, 5060 세대를 위한 울주 오피니언리더 운영 등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울주선바위도서관을 울산 대표 도서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전국 최고의 복합교육·문화 공간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며, 군민 모두가 좋은 책을 더 가까이에서 읽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대차 서비스인 ‘책두레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